

##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과 출현 배경

김 권 구\*

- I. 머리말
- II.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현황
- III.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축조 시기, 기능, 석재의 종류, 채석후보지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과 출현 배경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입석의 분포상황, 지형, 월배지역 청동기시대의 취락과 지석묘군 분포양상,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사회문화상과 생업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이다.

검토 결과 월배지역 입석군(立石群)은 농경정착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집단영역의 배타적 점유강화방식의 일환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인 기원전 8세기-기원전 4세기에 축조된 농경정착사회기념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 ggkimdream@kmu.ac.kr

입석의 기능도 분화되어 집단영역의 경계표시물, 제사의례기념물 혹은 추상적-집합적 조상제사의 출현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전개되는 모습이며 입석의 상징적 의미도 다양화되고 중층화되며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동 입석의 암각화가 보여주듯 입석과 같은 거석문화와 암각화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또 입석은 자연영역과 인위적 취락의 공간을 구획하며 집단차원에서는 집단이 인지하는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의례센터표시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면서 취락 내에서는 거주영역, 무덤영역, 의례영역, 경작영역 등을 구획하는 좌표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입석을 축조한 월배선상지 내의 취락분포양상과 취락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입석의 동시기성 확인을 위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월암동 1호 입석과 월암동 3호 입석의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주 좁은 면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층만으로 입석의 축조시기를 판단하는 것에는 미진한 바가 크므로 입석축조시기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금 넓은 범위의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입석의 재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석으로 사용된 암석의 채석장소를 파악하는 것도 요망된다.

◆ 주제어

입석, 청동기시대 후기, 경계표시, 의례센터, 농경정착사회의 기념물.

## I. 머리말

입석(menhir)은 지석묘(dolmen), 석렬(stone alignments), 환상석렬(stone circles), 헨지(henge monument) 등과 더불어 거석문화의 하나이다(김권구 1999:91, 93). 입석과 관련 있는 거석문화의 대표적 사례는 영국 남서지역의 스톤헨지(Stonehenge)(Richards 1991, Burl 1995:87-90, 김권구 1999:84-85), 에이브베리(Avebury) 거석유구(Burl 1995:82-86, Dames 1996, 김권구 1999:85-86), 스코틀랜드 칼라니쉬(Callanish) 거석유구(Burl 1995:148-151, 김권구 1999:87), 스코틀랜드 오크니제도 스테니스 거석유구(the Standing Stones of Stenness, Orkney)(Burl 1995:147-148, 김권구 1999:87-88)와 그 인근의 브로드가 거석유구(Ring of Brodgar)(Burl 1995:145-147, 김권구 1999:88), 프랑스 남서지방의 카르낙 석렬(the Carnac alignments)(Mohen 2000), 아일랜드의 뉴 그란지(Newgrange) 무덤유적 입구에 서 있는 입석(O'Kelly 1989:100, Burl 1995:242-243, 김권구 1999:90) 등을 들 수 있다.

스톤헨지는 농경이 행해진 신석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3400<sup>1)</sup>년 전후부터 축조되어 청동기시대인 기원전 1500년경 전후까지 크게 4기에 걸쳐 규모와 형태의 변화를 거치며 의례센터로 기능한 것으로 알려졌다(Burl 1995:87-90, 김권구 1999:93). 또 서구 유럽의 영국 남서부, 스코틀랜드 고원지대, 프랑스 남서부, 아일랜드 등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 이들 거석 유구들의 축조 상한은 신석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3400년 전후이며 하한은 청동기시대인 기원전 1500년경 전후이지만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2000경에 본격적으로 축조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때는 영국의 경우 농경이 시작되면서 영역의 배타적 점유 등 영역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는 시기로 집단 사이 또는 개인 사이에서 경

1) 일부 연구자는 스톤헨지 주변의 도랑의 바닥에서 나온 표본으로 탄소동위원소연대측정치를 토대로 스톤헨지의 축조 시작이 기원전 2800년경이고 스톤헨지의 하한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500년경이라고 주장한다(Richards 1991:68-69).

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상징과 의례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입석을 포함한 거석기념물인 것으로 판단된다(김권구 1999:93).

대구 월배지역은 ‘입석의 도시’라고 할 만큼 입석이 많다. 원래 월암동 입석 5기(윤용진 외 1990:89-92,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108), 진천동 입석 1기, 상인동 입석 1기가 있어서 모두 7기의 입석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5기의 입석(월암동 입석 3기, 진천동 입석, 1기, 상인동 입석 1기)이 현존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1개 정도의 입석이 있거나 입석리나 입석동이라는 지명으로만 그 존재의 흔적을 겨우 찾게 되지만 월암동 입석 1호, 2호, 3호 그리고 상인동 입석, 사적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천동 입석과 같이 현존하는 입석들이 밀집되어 남아 있는 대구 월배지역은 입석과 지석묘를 포함한 거석문화의 전개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주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입석의 축조전통은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도 지속되었으므로 청동기시대에 속한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그를 방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논문에서는 대구 월배지역의 입석의 기능 그리고 축조시기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입석이라 하더라도 입석이 가장 많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큰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입석의 축조 시기 검토는 첫째, 청동기시대 구지표의 확인 여부, 둘째, 구지표에 수혈을 파고 입석을 세웠고 입석 지탱을 위한 채움석 등의 시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토층의 안정성 여부, 셋째 입석의 원위치 여부, 넷째 입석 주변 유구의 존재 여부와 출토유물, 다섯째, 입석의 암각화 문양과 청동기시대 다른 유적에서 확인된 암각화 문양과의 공통점 여부 등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입석의 기능과 성격은 인접 유구와 출토유물의 종합적 검토, 입석의 입지와 입지형태의 특성, 입석의 배열양상 속에서 검토될 것이다. 입석이 축조된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입석이 축조되던 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 II.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현황

### 1. 현황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대구 월배지역에는 원래 7기의 입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5기만 잔존한다. 대구 월암동 입석 4호와 5호는 멸실되었다. 현존하는 대구 월배지역의 입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구 월암동 1호 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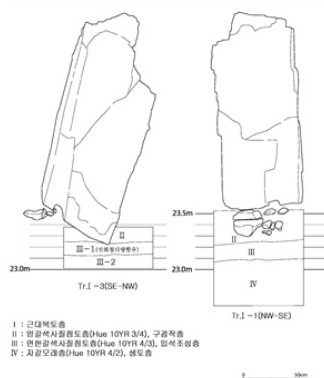
월암동 415-2번지의 월배선상지 하단부의 해발 23.5m(홍익문화재연구원 2016:18)에 입지한다. 석재는 혈암(頁岩)으로 보고되었으며(윤용진 외 1990:89, 홍익문화재연구원 2016:18) 단면 방형에 가깝다. 높이 192cm, 너비 80cm, 폭 70cm, 둘레 200cm 정도이다<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도면1>. 그리고 월암동 1호 입석의 하단부에 채워진 잔자갈, 입석 주위로 연한 갈색 사질점토층이 살아있는 점을 근거로 원위치일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익문화재연구원 2016:23, 26-27).



(a)



(b)



(c)



(d)



(e)

<사진1> 월암동 1호 입석의 현재 모습(a), <사진2> 월암동 1호 입석의 세부 모습(암석이 갈라진 결이 보임)(b), <도면1> 월암동 1호 입석 입면도(홍익문화재연구원 2016:18)(c), <사진3> 월암동 1호 입석(시굴 모습-입석 기초부의 고입석)(홍익문화재연구원 2016:34)(d), <사진4> 월암동 1호 입석 기반부의 고입돌 세부(홍익문화재연구원 2016:35)(e).

## 2) 대구 월암동 2호 입석

1호 입석에서 북동쪽으로 150m 떨어져 있으며 월암동 441-2번지의 월배선상지 선단부 해발 23.4m에 입지한다(삼한문화재연구원 2018:41, 윤용진 외 1990:89). 석재는 화강암(윤용진 외 1990:89)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혈암으로 보고되었으며 단면형태는 오각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높이 260cm, 너비 100cm, 두께 64cm이다(삼한문화재연구원2018:41). 복토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현대 논 상면(해발고도 23.4m)에서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길이와 너비가 90cm, 깊이 30cm인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입석을 이 수혈에 놓고 흙과 돌로 채워 고정시킨 결과로 보이는데<사진5, 사진6, 사진7, 도면2>, 입석은 1990년대 전후까지 인접 지역에 있었고 이 일대가 복토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된 것으로 보면서 발굴자는 토층상으로도 현대 논 상면에서 수혈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월암동 2호 입석의 현 위치가 원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삼한문화재연구원 2018:41).

입석은 통일신라시대 이전까지 존재했던 하천 변에 입지하며 그 배후에 청동기시대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청동기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굴자는 판단하였다(삼한문화재연구원 20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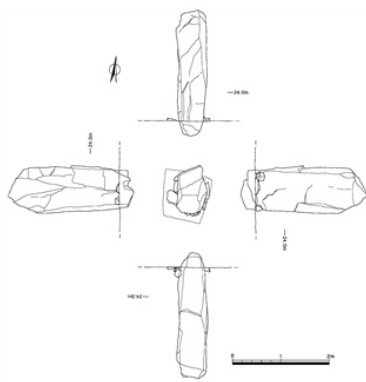
(a)



(b)



(c)



(d)

<사진5> 월암동 2호 입석의 발굴 장면(삼한문화재연구원 2018:140)(a), <사진6> 월암동 2호 입석 기반부의 고임돌 모습(삼한문화재연구원 2018:142)(b), <사진7> 원래 위치의 인근에 소재하는 월암동 선돌공원 안에 이전

복원된 월암동 2호 입석의 현재 모습(c), <도면2> 월암동 2호 입석 입면도 (1:40)(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4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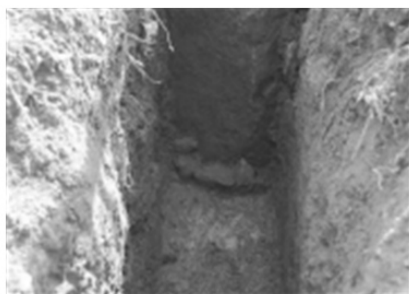
### 3) 대구 월암동 3호 입석

월암동 2호 입석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월암동 665-5번지 논가에 입지하며 입석이 입지했던 월배선상지의 선단부의 구지표는 해발 23.2m 정도(홍익문화재연구원2016:20)로 보인다. 석재는 혈암(頁岩)으로 알려졌다(윤용진 외 1990:92) 2016년 이루어진 시굴조사보고서에서 화강암으로 보고되었고 단면은 마름모꼴에 가까우며 크기는 높이 215m, 너비 65cm - 85cm, 두께 50cm, 둘레 190cm이다(홍익문화재연구원 2016:23)<사진8, 사진9, 사진10, 사진11, 도면3>.

입석의 하단부에서 고임돌로 사용한 잔자갈과 안정적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잔자갈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사진8, 사진9, 도면3> 입석이 원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익문화재연구원 2016:23).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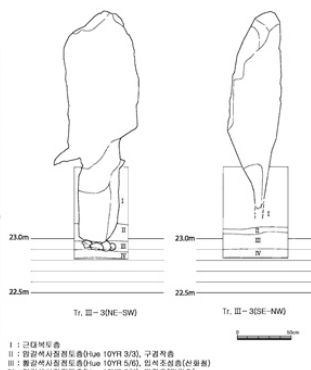
(b)



(c)



(d)



(e)

<사진8> 월암동 3호 입석의 시굴모습 (홍익문화재연구원 2016:38)(a), <사진9> 월암동 3호 입석의 기저부 고임돌 모습(홍익문화재연구원 2016:39)(b), <사진10> 월암동 3호 입석의 현재 모습(길가에 보호철망에 둘러싸여 있음)(c), <사진11> 월암동 3호 입석의 세부모습(입석 암석의 내부색상과 특성이 보임)(d), <도면3> 월암동 3호 입석의 입면도(홍익문화재연구원 2016: 20)(e).

#### 4) 대구 월암동 4호 입석

월암동 3호 입석에서 동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월암동 663-15번지에 입지하며 재질은 화강암이고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크기는 높이 160cm, 너비 100m, 폭 50cm이다(윤용진 외 1990:92). 현재 월암동 4호 입석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 5) 대구 월암동 5호 입석

4호 입석에서 남동쪽으로 130m 떨어진 월암동 882-3번지에 입지한다. 입석의 재질은 혈암(頁岩)이며 크기로는 높이 185cm, 너비 86cm, 폭 60cm이다(윤용진 외 1990:92). 현재 멸실되었다.

## 6) 대구 진천동 입석

진천동 입석은 진천동 470-38번지에 입지하며 사적 제411호로 지정되어있다. 입석이 입지하는 장소는 월배선상지의 해발 37.2m 지점에 해당한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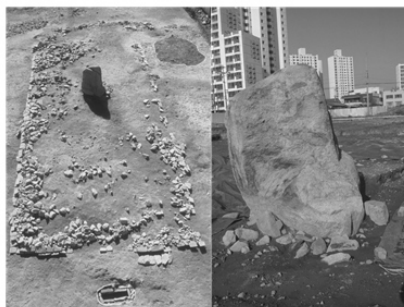
입석의 석재는 화강암(윤용진 외 1990:84, 이백규 외 2000:23)이고 입석의 크기는 높이 210cm, 너비 150cm, 두께 110cm이고 입석에는 6개의 성혈과 4개의 나선형문이가 확인되었다<사진12, 사진13, 사진14, 도면4, 도면5>. 입석을 세우기 위해 판 수혈은 너비가 약 165cm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깊이는 구지표면에서 약 55cm이고 수혈의 북쪽 경계는 입석과 바로 접해 있고 남쪽은 입석과 다소 떨어져 있으나 그 사이에 작은 냇돌들이 확인되었는데 이 냇돌들은 입석을 세운 후 이를 지탱하기 위해 채운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백규 외 2000:23)<사진15, 사진16>. 그리고 장방형의 석렬기단도 확인되었고 입석은 기단부의 중앙에 입지하며 석렬기단은 북쪽과 북쪽이 2-3단 남아 있고 서쪽은 1단 정도 남아 있었다<사진14, 사진15>.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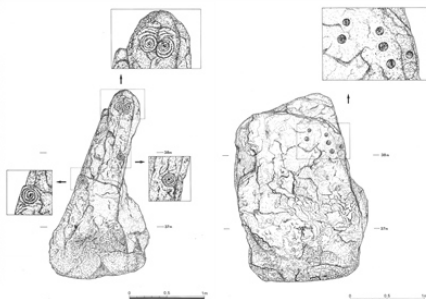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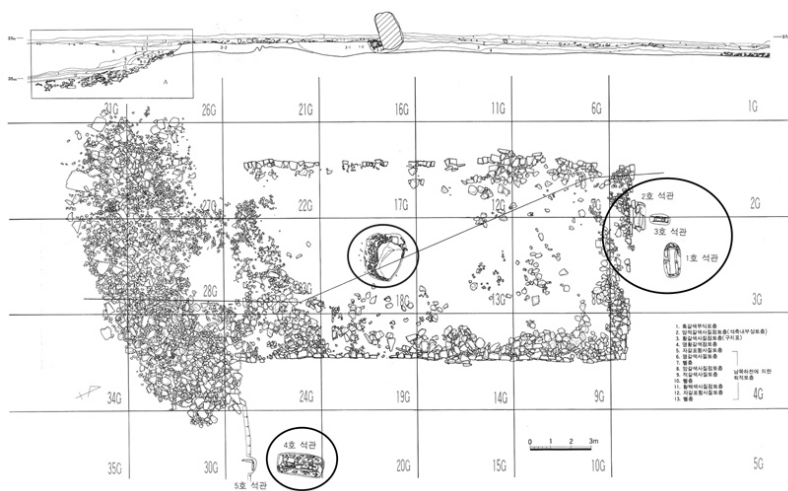
(e)



(f)

(g)

<사진12> 진천동 입석의 측면모습(입석 상부에 나선형문 혹은 동심원문이 보임)(a), <사진13> 진천동 입석의 정면(입석 오른쪽 중앙부위에 성혈이 보임)(b), <사진14> 현재의 진천동 입석과 석축기단 모습(c), <사진15> 발굴시 노출된 진천동 입석과 석축기단(이백규 외2000:49)(d), <사진16> 발굴시 노출된 진천동 입석과 고임돌(경북대학교박물관 발굴사진)(e), <도면 4> 진천동 입석의 나선형문 암각화(이백규 외 2000:16)(f), <도면5> 진천동 입석의 성혈(이백규 외 2000:15)(g).



<도면6> 진천동 입석과 석축기단 그리고 주변의 석관(가운데 원은 입석이 위치하며 좌우의 원에는 석관묘군의 분포모습임)(이백규 외 2000:17).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구연부 편 및 저부 편 다수, 적색마연토기 동체부편, 숫돌, 유구석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기단 바깥 가까이의 구지표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관석 사이에서 출토된 것들이 적지 않다(이백규 외 2000:25-40).

입석의 인근에서는 석관 5기가 확인되었다<도면6, 사진15>. 1호 석관은 입석유구의 북쪽 기단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2호 석관은 입석 유구 북쪽 기단에 바짝 붙어서 발견되었다. 3호 석관은 2호 석관에서 북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축조되었으며 4호 석관은 잔존 석축 기단의 남동쪽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4호 석관은 잔존 석축기단의 남동쪽 가장자리에서 약 4.5m 떨어진 곳에 축조되었다. 5호 석관은 석축 기단 남동쪽 가장자리에서 동쪽으로 약 4.5m, 4호 석관에서 남서쪽으로 약 1.5m 떨어진 장소에 축조되었다(이백규 외 2000:40-45).

## 7) 대구 상인동 입석

대구 상인동 입석은 상인 4동 속칭 “달배”마을 어귀의 밭에 서 있었는데 이곳은 대덕산(大德山)과 산성산(山城山) 사이를 흐르는 계곡의 아래부분으로 원래 월배선상평야 정점(頂點)에 입지한다(윤용진 외 1990:92). 1990년 발간된 지표조사보고서에서의 소재지는 대구 상인동 1218-5번지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인동 1569번지의 당산어린이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지표조사보고서에서 입석의 소재지와 현재의 소재지가 다른 것이 입석의 현 위치가 원위치가 아님을 암시한다. 원위치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70-80m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인동입석의 석재 화강암계이고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높이 250cm,

길이 170cm, 폭 100cm이다(윤용진 외 1990:92)<사진16, 사진17>. 상인동 입석이 이전된 장소의 인근지점의 높이가 해발 76.1m여서(영남 문화재연구원 2006:143) 월배선상지의 선정부(扇頂部)에 존재하던 입석의 원래 위치에서에서의 해발높이도 그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a)



(b)

<사진16> 상인동 입석의 현재 모습(정면)(a), <사진17> 상인동 입석의 현재 모습(측면)(b)

## 2. 분포양상과 입지

대구 달서구 월배지역의 입석은 월배선상지(月背扇狀地)의 선단부에 월암동 입석이 5개 위치했었고 상인동 입석은 월배선상지의 선정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원위치인 것으로 보이는 입석은 월암동 1호 입석, 월암동 3호 입석, 진천동 입석이며 월암동 2호 입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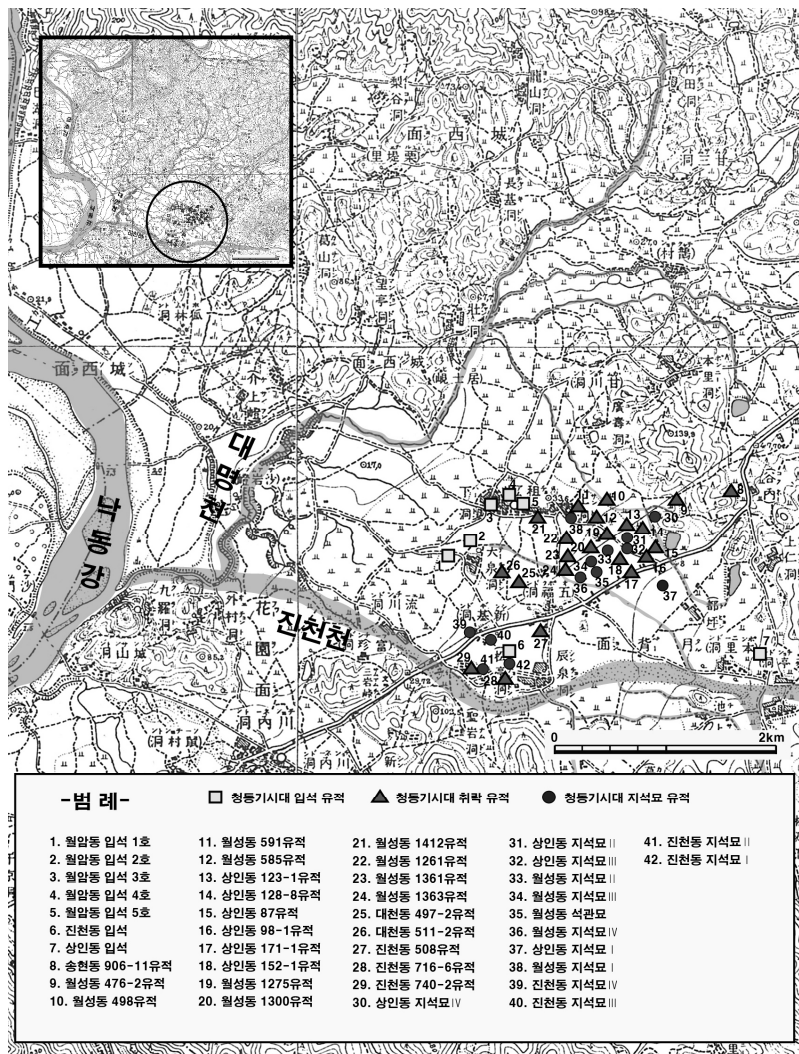
10-20m 인근지역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고 상인동입석은 70-80m 떨어진 곳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석의 위치 양상을 지형도에 표시한 것이 <지도1>이다.

월암동 입석군(立石群)과 상인동 입석의 분포양상은 월배선상지의 선단부에서 선정부의 경계표시를 하고 그 사이에 특정시기의 취락공동체의 취락경계를 표시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리고 진천동 입석은 석관묘 5기 등과의 인접성<사진15, 도면6>과 지식묘 석축기단과의 유사성<사진14, 사진15, 도면6>, 입석에 보이는 문양과 붉은색 계통의 석채색상의 일부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장례의례나 제사의례 등 의례 관련유구로 보인다.

원래 월배 선단부에 가장 바깥쪽에 입지하는 월암동 입석을 기준으로 월암동 입석과 진천동 입석 그리고 상인동 입석의 이격거리를 측량해보면, 일부가 10m에서 100m 내외에 떨어진 곳(원위치)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인근지점으로 이전되었다면 현재의 입석간 이격거리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월암동 입석-진천동 입석의 이격거리가 1.6km, 월암동 입석-상인동 입석의 이격거리가 3.2km, 진천동 입석-상인동 입석의 이격거리가 2.3km이다<도표1>. 입석의 이격거리는 자원활용영역분석(Site Catchment Analysis)에서 취락의 자원활용영역의 공간 범위로 1시간 도보거리 혹은 5km 이내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Vita-Finzi 1978:87, Flannery 1976:103-117, Renfrew et al 2004:264-265, 콜린 렌프루 2006:264-265) 취락으로부터 1km 반경, 2km 반경, 3km 반경, 4km 반경, 5km 반경은 취락에서의 근접도 정도에 따라 자원활용영역의 비중에 상이한 가중치를 주기도 하지만 중심취락과 하위취락군으로 결합된 취락공동체나 지역공동체가 들어설 만한 공간규모이다.

월암동 입석군-진천동 입석-상인동 입석으로 구획된 월배지역의 선상지 공간은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에 중심취락과 하위취락군으로 구성된 취락공동체가 존재하기에 충분한 공간규모이다. 대천동 413번지유적, 대천동 497번지유적, 대천동 511-2번지유적, 월성동 585유적,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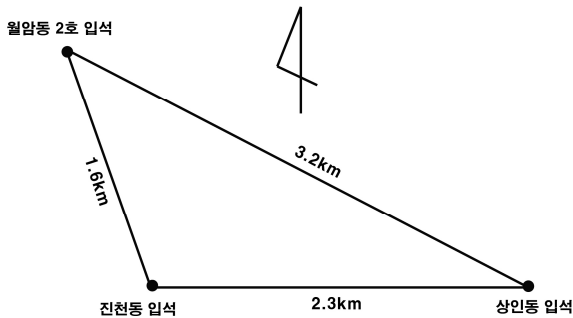
성동 1261번지유적, 월성동 1300번지유적, 상인동 87번지유적, 상인동 123-1번지유적, 상인동 171-1유적 등은 월배지역의 선상지에서 송국리 석주거지가 발굴된 주요사례인데(하진호2008:58-63) 입석축조시기의 취락과 관련되어 주목된다. 월배선상지의 지형적 특성과 청동기시대 시기별 취락의 분포와 구조의 변천 그리고 공간구획의 변천에 대한 연구(류지환2010:77-123)도 나온 바 있는데 이 연구는 앞으로 월배지역 중심취락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하위취락의 분포양상과 규모를 포함한 취락구조에 대한 심화연구를 하는데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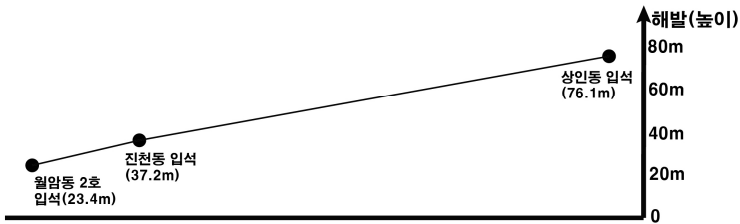
<지도1> 대구 월배지역 입석 유적과 주요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양상

월암동 2호 입석의 해발고도(23.4m), 진천동 입석의 해발고도(37.2m), 상인동 입석의 해발고도(76.1m)의 상대높이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이

<도표2> ‘월배지역 입석 소재지의 해발고도 비교’ 도표이다. <도표2>는 입석이 선상지의 선정부와 선단부에 입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상인동 입석은 현소재지 인근의 해발고도를 가져온 것임으로 대체로 소재지의 해발고도가 대체로 23m-76m 내외의 범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1> 월배지역 입석의 상호이격거리



<도표2> 월배지역 입석 소재지의 해발고도

물의 개념과 기능을 죽음과 재생, 소멸과 창조라는 반대병립감정(反對並立感情, ambivalence) 설에 따라 해석한 C.G. Jung 이후의 M. Eliade 등의 주장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석의 위치가 강이나 냇가의 옆에 있으며 서 있는 자세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며 물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이용조1985:439-442)도 월배지역 입석의 입지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월암동 입석의 북쪽으로는 대명천이 흐르며 상인동 입석과 진천동 입석의 남쪽으로도 진천천이 비교적 가까이에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III.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축조 시기, 기능, 석재의 종류, 채석후보지

#### 1. 월배지역 입석의 축조시기 검토

입석의 축조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입석의 이해에 중요하다. 그러나 축조시기를 층위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진천동 입석을 세우기 위해 판 수혈과 입석 지탱용 냇돌들이 확인된 점에서 입석이 원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석렬 기단의 중앙부에 입석이 위치하는 점, 석렬 기단 주변에서 무문토기편 등이 다수 출토된 점, 입석을 둘러싸고 청동기시대 석관이 다수 확인된 점, 입석에서 청동기시대 암각화와 지식묘 상석에서 발견되는 나선형문과 성혈이 확인되는 점<사진12, 사진13, 도면4, 도면5>, 석렬 기단을 가진 지식묘나 입석이 대구 상인동 묘역지석묘 유적(현재 경북대박물관 정원에 이전복원 야외전시 중), 경주 전촌리유적, 창원 덕천리 유적, 창원 진동리 유적, 산청 매촌리 유적(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이전복원 야외전시 중) 등에서 다수 확인되는 점도 진천동 입석이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입석임을 명확하게 암시한다. 또 진천동 입석유적에서는 석축기단 주변에서 무문토기편들이 공반되어 입석을 포함한 장방형의 석축기단이 청동기시대에 축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백규 외2000:46).

발굴되었으나 원위치에서 이동된 것으로 밝혀진 월암동 2호 입석이나

개발되면서 발굴 없이 현 위치로 이동된 상인동입석 그리고 이미 멸실된 월암동 4호 입석과 5호 입석은 입석의 편년연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암동 1호 입석과 3호 입석은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월암동 1호 입석과 월암동 3호 입석의 원위치 여부 판단은 넓은 면적을 발굴한 것이 아닌 아주 좁은 면적에 대한 시굴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토층자료에 근거를 둔 것임으로 토층의 비교자료가 커지도록 발굴면적을 넓혀 해당 입석 주변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입석의 축조시기를 암시할 수 있는 토층과 더불어 관련된 유구가 출현한다면 신뢰도 증대될 것이다. 또 월암동 2호 입석의 발굴자는 원소재지에서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월암동 2호 입석이 통일신라시대 이전까지 존재했던 하천 변에 입지하며 그 배후에 청동기시대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청동기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삼한문화재연구원 2018:41).

또 월성동 일대와 상인동 일대, 진천동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군과 지식묘군이 다수 분포하고<sup>2)</sup>(윤용진 외 1990:75-92,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107-113, 하진호 2008, 류지환 2010)<지도1> 발굴을 통해 청동기시대 초기(돌대문단계), 전기(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단계, 공열토기단계), 후기(송국리단계)로 편년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즉 월암동 입석군과 상인동 입석이 입지한 선상지의 선정부분과 선단부 사이에 청동기시대 다수의 주거지군과 지식묘군이 각각 군집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속에서도 지식묘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가락동단계, 혼암리단계 등)이지만 지식묘와 입석 등 정착농경사회의 기념물로서 거석문화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시기는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이다. 이 시기는 농경이 본격화되고 정주취락의 체계화와 대규모 취락의 등장 등이 전개되어 취락영역에 대한 배타적 독점의 강화와 과시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송국리문화양상

2) 구체적인 주요 유적명칭은 <지도1>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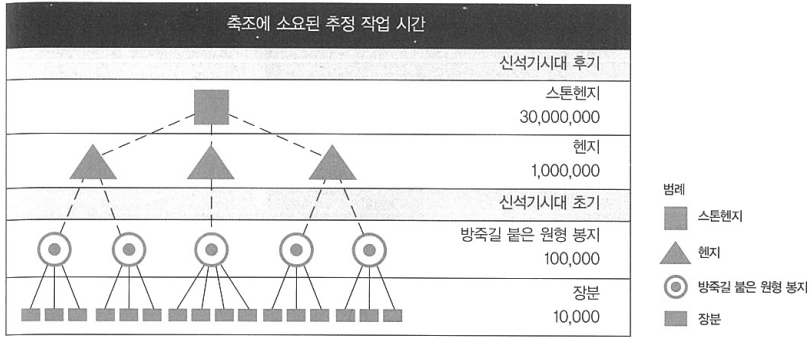
을 보여주는 평면원형에 작업공이 있는 주거지들이 무리를 이루어 다수 확인되었고 또 지석묘군도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월배지역의 입석은 거석문화로 지석묘가 왕성하게 축조되던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인 기원전 8세기경-기원전 4세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더 좁히면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에서도 후반(기원전 6세기-기원전 4세기)일 가능성이 크다. 월배선상지를 선정부에서부터 선단부까지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사이에 지석묘와 입석을 축조하였던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취락에 의해 입석이 배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입석이 조선시대까지 취락에서 채택되기도 할 수 있지만 입석들이 첫째,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군과 지석묘군이 밀집한 월배선상지를 구획하고 있는 점, 둘째, 창원 덕천리유적, 창원 진동리유적, 산청 매촌리유적, 칠곡 복성리유적 등 묘역식지석묘와 묘역석축이 청동기시대 후기 영남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점, 셋째, 보와 수로 그리고 농경지 확장 등 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그 영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의 필요성이 커진 시기가 청동기시대 후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월배지역 입석이 청동기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2.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검토

입석의 기능과 성격은 입석의 위치와 다른 유구와의 관계 그리고 입석에 새겨진 암각화의 문양 등의 관계망 속에서 검토될 수 있다. 입석의 기능으로서 무덤 선돌(墓標)의 기능, 풍요기능, 수호기능으로 구분한 연구(한규량 1984:291-302)가 발표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입석의 기능을 묘표석(墓標石)의 기능, 취락의 어귀에 입지할 경우 수호(벽사) 기능, 논밭과 같은 경작지에 입지할 경우 풍요기원기능, 고갯길이나 옛길 옆에 있는 것은 경계 또는 이정표의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가하여 정리한 연구(하문식 2008:28, 38-41)가 있어서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과 성격의 검토에 참고가 된다.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의 영역경계표시물로서의 입석기능이 상정된다. 월암동 입석과 상인동 입석은 청동기시대 취락이 집중해서 분포하는 구역의 경계 부분에 입지한다는 점에서 수호(벽사) 기능과 이정표 기능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월암동 입석군(立石群)과 상인동 입석의 분포양상은 월배선상지의 선단부에서 선정부의 경계표시를 하고 그 사이에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에 속하는 취락공동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입석의 분포범위가 자원활용영역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5km 범위 혹은 1시간 도보거리에 입지하는 모습이 상인동-월성동-진천동 일대에 존재한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과 하위 취락으로 구성된 취락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안팎 경계를 표시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다.

둘째, 집단을 대표하는 의례중심센터의 상징물로서의 입석기능도 상정된다. 마치 영국 웨섹스지방 스톤헨지(Stonehenge)와 같은 집단을 상징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이다. 그리고 의례센터의 위계에서 축조에 소요된 에너지를 가지고 위계화한 결과 헨지, 원형 봉지, 장분 등 다른 무덤이나 다른 의례센터보다 상위의 의례센터를 상정한 연구가 보여주듯(콜린 렌프류 외 2006:202-203, 2008:149, Renfrew 외 2004: 202-203)<도표3> 청동기시대 후기 진천동 입석이 월배지역 안에서 다른 무덤유구나 다른 의례유구보다 위상이 높았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도표3> 영국 웨섹스지방 신석기시대 의례유구의 위계관계 모식도(렌프류 외2006:202-203, 2008:149, Renfrew 외 2004: 202-203)**

셋째, 조상제사의례 기념물로서의 입석기능도 상정된다. 진천동 입석은 석관묘 5기 등과의 인접성<사진15, 도면6>과 지식묘 석축기단과의 유사성, 입석에 보이는 문양과 붉은색 계통의 석채색상의 일부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장례의례나 제사의례 등 의례관련유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나아가 개별적 조상숭배와 제사의례를 개별 지식묘 앞에서 하지 않고 추상적·집합적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념물일 가능성도 있다. 산청 매촌리 묘역식지석묘군에서도 매장주체부가 없이 입석 혹은 상석이 석축기단의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확인되며 지식묘가 마치 지상식의 봉분처럼 생기면서 제단을 가진 지식묘가 나타나는 창원 진동유적도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에 속함으로 진천동 입석도 그와 같은 지식묘와 관련된 의례유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넷째, 입석을 둘러싼 석축기단에 인접해서 석관묘가 분포하는 점에서는 입석이 묘표석 기능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월배지역 내에서의 취락공간구분의 기준점으로서의 기능도 상정된다. 거주공간, 무덤공간, 의례공간, 생업공간 등 취락의 영역이 구획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301)과 같은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의 취락내부 공간구획의 기준

점 기능을 하였다고 보인다. 농경사회의 거석문화 기념물인 지석묘와 입석이 주거군의 배치와 더불어 공간구획을 하며 취락 내 소집단의 구역을 표시하며 총괄적으로는 집단의 상징기념물과 경계표시를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기념탑(the Washington Monument)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을 수 있다. 월배선상지인 진천천 일대의 청동기시대 취락 단위와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지석묘군의 분포양상과 입지를 토대로 월성동 구역, 상인동 구역, 대천동 구역으로 나누고 주거지영역, 무덤영역, 추정 농경역, 공지(空地) 등으로 각 구역별로 나타나는 공간구획양상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류지환2010:77-123).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사례를 통하여 입석기능의 분화양상과 다양화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월암동 입석과 상인동 입석에서 취락의 경계표시 기능, 수호(벽사) 기능, 이정표 기능이 추정되고, 진천동 입석에서 장례의례 또는 제사의례와 관련된 의례중심센터로서의 기능과 묘표식 기능, 그리고 취락공간구획의 기준점으로서의 기능 등이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입석의 의미와 상징성은 중층적 구조 속에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재해석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진천동 입석의 경우에는 나선형문 혹은 동심원문 암각화와 성혈이 있어서 암각화전통과 거석문화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포항 인비동 16호지석묘 상석과 여수 오림동5호 지석묘 상석의 암각화 그리고 밀양 황성동 살래유적 1호 지석묘(묘역식 지석묘) 묘역석의 암각화와 더불어 지석묘 및 입석을 중심으로 한 장례의례와 제사의례에 암각화의 상징성이 결합되는 모습으로 보인다. 정주농경취락의 전개과정에서 영역의 배타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석문화와 암각화가 결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념물의 축조를 통하여 신석기시대에 시간, 장소,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상이한 관념의 구축이 일어났으며, 문화적 표식(cultural markers)은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하는데 사용되어 집단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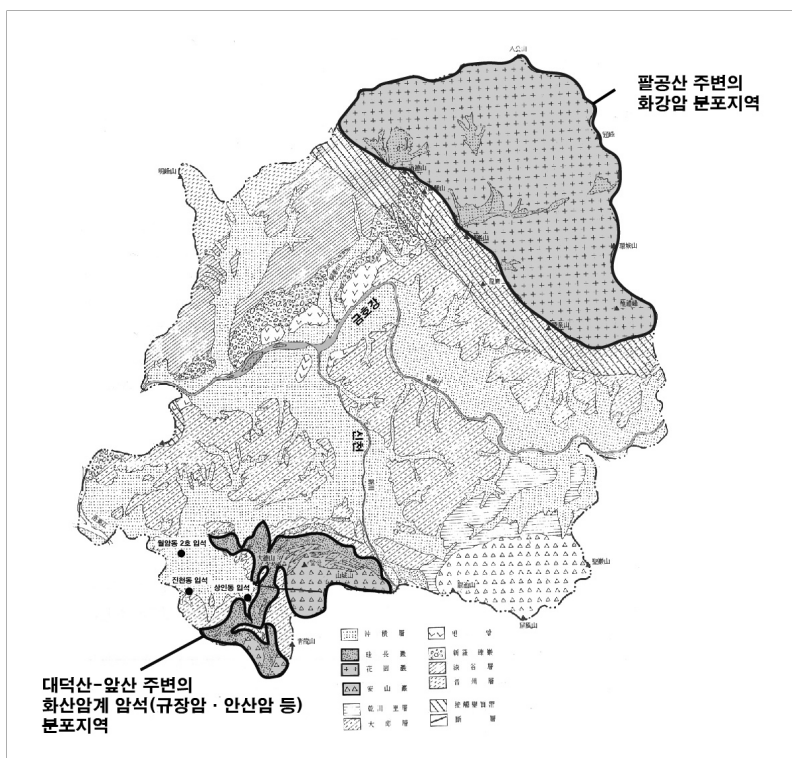
으로 생각되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의 사회적 통제양상을 정당화하고 한편으로는 경관을 통해 이미 확립된 조상과의 연계성과 접근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용했다(Tilley 1994:208). 이러한 동태적·지속적 과정을 통하여 입석은 정착농경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또한 집단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공간을 구획하여 내외부와 구별하고 취락내부 속에서도 거주영역, 무덤영역, 경작영역, 의례영역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입석의 의미와 상징성은 다의성과 중층성을 가진 상태에서 월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거주 집단의 지속적 의미부여 속에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sup>.

### 3. 입석의 석재 채석후보지

대구지역은 중앙은 수성퇴적암(水成堆積巖) 지대이며 남부의 화산암지대(안산암지대), 북동부의 화강암관입지대로 나누어지며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30-33)<지도2> 월배지역의 입석들도 화강암으로 논의 되고 있지만 대덕산과 앞산일대에 존재하는 화성암(火成岩, igneous rock)인 규장암(玆長岩, felsite) 혹은 화산암(火山岩, volcanic rocks)인 안산암(安山岩, andesite)계 암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안산암, 규장암, 화강암 모두 마그마의 응결과 관련된 암석이기 때문에 정확한 암석종류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화강암(花崗岩, granite)이라면 팔공산인근의 대구 북동부 화강암관입지대에서 이동된 것이 되어 주목된다.

3) 농경사회의 물질문화 중에 특히 기념물과 같은 것은 의례의 수행을 통해 축조되고 의례의 반복으로 존속되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이성주1999:428). 이와 같은 동태적 과정에 대해서 브래들리(R. Bradley)는 사회적 시간에서 의례의 수행과 과정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형식화된 규칙·관념·구조·이념들이 의례를 통해 실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례에 의해 구조화되며 그와 같은 양면적 과정이 기념물의 축조와 재축조 사용 등을 매개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성주 1999:428 재인용). 이것은 입석의 축조와 의미 그리고 상징성에 대한 재해석의 동태적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 입석의 재질에 대해서는 지표상에서 가장 흔한 퇴적암인 혈암(頁岩) 또는 혈암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화강암이라고 보고자마다 다르게 암질이 보고되고 있다<표1>. 월암동 2호 입석과 월암동 3호 입석의 재질이 혈암과 화강암으로 보고자마다 다르게 보고된 것이 그 사례이다. 실제 방문확인결과 입석암질이 전형적인 화강암이 아닌 모습이어서(월암동 입석군, 상인동 입석) 앞으로 암석학자의 연구와 과학적 성분분석을 통한 과학적 암질 확인과 심도 있는 입석암석 채석지의 추적 이 요망된다.



<지도2> 대구지역의 지질4)

<표1> 월배지역 입석의 석재와 입지

입석명	입석의 석재	입지	원위치 여부	특성
월암동 1호 입석	혈암(貞岩)(홍익문 화재연구원2016:23, 윤용진 외1990:89)	선단부	원위치 추정	1) 인근에 소하천이 흐르는 곳에 입석이 위치한다. 2) 월암동입석 5기는 선상지의 가장 낮은 부분인 선단부를 따라서 열상배치되었고 상인동 입석은 선상지의 선정부에 위치하여 취락의 경계지점을 표시하는 양상이다. 3) 월암동 입석 5기는 혈암 석재와 화강암 석재를 사용한 모습이며, 상인동 입석은 화강암계이고 진천동 입석은 화강암으로 보고되었다. 4) 제사의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진천동 입석에서만 나선형문 혹은 성혈이 발견되는 양상이다. 지석묘에서 나타나는 암각화 전통(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 상석의 암각화,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상석의 암각화, 밀양 살내 1호 지석묘 묘역석의 암각화 등)이 입석에도 채용되는 양상이다.
월암동 2호 입석	혈암(삼한문화재연구원2018:41), 화강암(윤용진 외1990:89)	선단부	위치이동	
월암동 3호 입석	화강암(홍익문화재연구원2016:23)혈암(윤용진 외1990:92)	선단부	원위치 추정	
월암동 4호 입석	화강암(윤용진 외1990:92)	선단부	입석 멸실	
월암동 5호 입석	혈암(윤용진 외1990:92)	선단부	입석 멸실	
진천동 입석	화강암(윤용진 외 1990:85, 이백규 외 2000:23, 김광명 2004:503)	선단부	원위치	
상인동 입석	화강암계(윤용진 외1990:92)	선정부	위치이동	

#### 4.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출현배경과 변화과정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출현배경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농경정착사회의

4) <지도2>는 『大邱市史』 제1권(通史)에 나오는 대구지역 지질도(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31)를 토대로 설명과 표시를 추가하여 만든 지도이다.

배타적 영역점유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는 벼농사가 확산되면서 농경의 비중이 증대되고 논산 마전리유적이나 안동 저전리유적 등에서 보이듯 수로와 보의 축조가 이루어지는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 단계)이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지식묘가 군집을 이루며 다양하고 차별화되게 축조된다. 즉 농경정착마을에서의 집단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식묘와 입석 등 거석문화로 표현되는 농경정착사회의 기념물이 발달하게 된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지식묘를 농경사회의 기념물로 보면서 지식묘가 축조되었던 세계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성숙한 농경단계에 이르러서 지식묘군이 축조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한 견해가 있는데(이성주1999:423-424) 이 견해는 진천동 입석의 경우와 같이 지식묘 혹은 석관묘와 관련하여 입석이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입석이 지식묘와 더불어 정착농경사회와 관련된 기념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sup>6)</sup>. 이와 관련 한반도 남부에서의 대규모 경작지가 청동

5) 기념물의 창출과 이용은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의 순화(domesticates)를 시작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로 나타나는 주요 방식 중의 하나라는 견해(Bradley1998:147)가 있는데 유럽에서의 거석기념물이 출현하는 배경을 농경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점은 필자의 입장과도 같다.

6) 월배지역 취락과 지식묘군의 분포양상은 이미 도시화과정에서 많이 유실되었고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만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월배지역 입석축조사회의 모집단 성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월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월성동777-2유적, 월성동 1261유적, 월성동 1300유적, 상인동 87유적, 상인동 123유적, 상인동 171-1유적, 대천동 413유적, 대천동497유적, 대천동 511유적 등)(하진호2008:62)과 지식묘의 분포양상과 발굴결과의 편린을 가지고 입석축조사회의 존재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월성동 777-2유적 II구역 내 주거지군을 둘러싼 구(溝)(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29), 월성동 1261유적에서 확인된 추정 이중환호, 대천동 413유적과 대천동 497유적에서 확인된 구(溝)를 대천동 511-2유적(지식묘·석관묘집단매장구역)을 포괄하는 횡타원형의 환호로 추정한 연구(하진호2008:86-88)는 월배지역에 환호취락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 주거공간과 묘역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천동 511-2번지유적 B군 12호묘를 일단경식석축류(하진호 외2009:144)와 월성동 585유적 청동기시대 4호 석관묘 출토 일단경식석축류(이청규 외2007:69, 71)를 포함한 월배지역 석관묘나 지식묘 출토 석축들의 형식과 대천동 467유적 제1구역

기시대 후기에 등장하는데 생산활동에 이용될 노동력을 무덤조성에 이용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인식되어 무덤의 규모가 작아지고 유물부장이 적어지며 반면 대규모 경작지의 출현과 더불어 공동작업 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동의 의례시설로 진천동 입석이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류지환2010:123)도 발표되어 월배지역 입석건립의 토대를 집단의 노동력을 식량생산에 합리적으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경작지의 출현과 잉여식량의 축적 그리고 유력자의 출현과 권력토대의 강화와 같은 집단별 유력자 사이의 경쟁전략과 유력자와 집단구성원 사이의 조상 출계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장례의례와 제사의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진천동입석을 세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대규모 경작지에서의 식량생산을 위해 집단에너지를 쏟기 위해 지석묘의 규모를 줄이고 공동의례시설로 입석을 세웠다고 하기 보다는 잉여식량의 축적을 통해 유력자가 출현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의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진천동 입석을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의 사회상과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된다. 월암동 입석군과 상인동 입석은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정착취락<sup>7)</sup>의 배타적 영역표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석관묘 출토 일단병식석검(대동문화재연구원2013:33), 월성동 585유적 청동기시대 2호 석관묘 출토 유경식석검(이청규 외2007:62)을 포함한 석검들의 형식은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월성동 585유적평면 원형의 송국리식 주거지와 더불어 석관묘 출토 석검과 석촉의 형식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로 보고 월성동585유적의 주거지에서 나온 AMS연대측정결과인 1호주거지(2680±40BP, Cal 850B.C.)와 4호주거지(2730±50BP, Cal 870B.C.)를 토대로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임을 뒷받침한다고 발굴자는 보고 있다(이청규 외2007:140).

- 7) 월배지역에서 청동기시대 확실한 경작유구나 탄화목물유체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의 월배지역 지석묘축조사회가 농경정착사회인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토층상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이전의 한 시점에 만들어진 추정경작유구가 일부 확인되어(영남문화재연구원2003:27, 59) 청동기시대 경작유구의 존재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대구 월암동 430번지 3구역 유적지내 구하도의 퇴적층에 대한 고생물 분석결과 3,040±30 y.BP에 해당하는 시기에 갈대屬을 중심으로 한 벼科 식물이 서식하는 습지환경이 유

이렇듯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농경의 본격화와 비중증대 그리고 수로와 보의 축조와 같은 고정적 시설물 투자로 상징되는 정착도의 증대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집단영역을 표시하고 지키는 일은 집단생존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영역의 배타적 점유확대를 위해 축조된 농경사회의 기념물을 중심으로 추상적-집합적 조상제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도 실행되면서 거석문화의 하나로서의 입석에 암각화전통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입석의 기능과 상징도 다양화된다. 이렇듯 입석이 가진 기능과 상징의 다양화와 중층화는 농경정착사회의 배타적 영역점유강화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례를 행하고 의미를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해석 및 문화변동과정이었고 그러한 의미와 상징을 농축하고 있는 월배지역 입석은 사회·경제·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농경사회의 물질문화 중에 특히 기념물과 같은 것은 의례의 수행을 통해 축조되고 의례의 반복으로 존속되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견해(이성주 1999:428)는 월배지역 입석의 축조와 의례의 수행과정 속에서 상징과 의미를 갖게 되고 의미가 재해석되어 동태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탈과정주의 고고학적 관점에서 잘 설명해준다고 판단된다.

---

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연구지역주변에서 인간활동이 집중되면서 재배벼를 중심으로한 벼科 출현율이 증가하나 해발고도 23.76m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연구결과(황상일 외 2017:123)와 대구 상인동 171-1번지유적 1호 수혈주거지 토기내부에서 발견된 탄화종자는 화본科 내 기장 屬(*Panicum* sp.) 또는 왕미꾸리광이屬(*Glyceria* sp.)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초본류는 청동기시대 여러 유적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논이나 밭에서도 흔한 잡초라는 점(이경아 2006:58)을 고려할 때 월배지역 내 경작유구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의 농경양상이 소하천(小河川)과 하도(河道), 구(溝) 등이 확인된 선상지인 월배지역에도 유사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I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과 출현 배경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를 위해 입석의 분포상황, 지형,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의 취락과 지석묘군 분포양상,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사회문화상과 생업양상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구 월배지역 입석을 농경정착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집단영역의 배타적 점유강화방식의 일환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인 기원전 8세기-기원전 4세기에 축조된 농경정착사회의 기념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입석의 기능도 분화되어 집단영역의 경계표시물, 제사의례기념물 혹은 추상적-집합적 조상제사의 출현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전개되는 모습이며 입석의 의미와 상징도 다양화되고 중층화되며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동 입석의 암각화가 보여주듯 입석과 같은 거석문화와 암각화가 결합하는 양상이다. 또 입석은 자연영역과 인위적 취락의 공간을 구획하며 집단차원에서는 집단이 인지하는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의례센터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면서 취락 내에서는 거주영역, 무덤영역, 의례영역, 경작영역 등을 구획하는 좌표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입석을 축조한 월배선상지 내의 취락분포양상과 취락구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입석의 동시기성 확인을 위하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월암동 1호 입석과 월암동 3호 입석의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주 좁은 면적의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층만으로는 입석의 시대확정에 미진한 바가 크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금 넓은 범위의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입석의 재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석채석장소의 파악도 요망된다.

※ 이 논문은 2020년 5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6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II)-青銅器-近代-』, 2008.
- 김광명, 『韓國考古學專門事典-青銅器時代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503쪽~504쪽.
- 김권구, 「나. 영국」,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83쪽~118쪽.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大邱市史』 第1卷, 대구광역시, 1995.
- 대동문화재연구원, 『대구 대천동 467유적』, 2013.
- 류지환, 『大邱 辰泉川 一帶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0.
- 삼한문화재연구원, 『大邱 月岩洞 遺蹟』, 2018.
- 영남문화재연구원, 『大邱 東川洞聚落遺蹟-본문2-』, 2002.
- \_\_\_\_\_, 『大邱 辰泉洞遺蹟』, 2003.
- \_\_\_\_\_,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 I (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 대구광역시·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 윤용진 외, 『大邱의 文化遺蹟-先史古代』, 대구직할사·경북대학교박물관, 1990.
- 이경아, 「대구 상인동유적 식물유체 분석」, 『대구 상인동 171-1번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58쪽~59쪽.
- 이백규·오동욱, 「辰泉洞 先史遺蹟」, 『辰泉洞·月城洞 先史遺蹟』, 경북대학교박물관·대구광역시달서구, 2000, 1쪽~90쪽.
- 이성주, 「마. 지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423쪽~441쪽.
- 이용조, 「한국 선사문화에서의 선돌의 성격-충청도 지방의 몇 예를 중심으로①-」, 『東方學志』 48집, 1985, 409쪽~475쪽.
- 이청규·김대환·권승록·김재열, 『대구 월성동 585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 콜린 렌프류·폴 반 지움/이희준 옮김,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2006.
- \_\_\_\_\_, 『현대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008.
- 하문식, 「경기지역 선돌유적과 그 성격」, 『고문화』 72집, 2008, 27쪽~51쪽.

- 하진호, 『大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 研究』,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8.
- 하진호·허정화·권현윤, 『대구 대천동 511-2번지유적 I』,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 한규량, 「한국선돌의 기능변천에 대한 연구 - 충청도지역 선돌중심으로-」, 『백산학보』 28호, 1984, 273쪽~343쪽.
- 홍익문화재연구원, 『대구 월암동 입석 IⅢ호 유적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
- 황상일·윤순옥, 「대구 월암동 430번지 유적의 자연과학 분석 연구」, 『대구 월암동 430번지 유적』, 동국문화재연구원, 2017, 111쪽~129쪽.
- Bradley R., 1998, *The Significance of Monuments -On the shaping of human experience in Neolithic and Bronze Age Europe*, Routledge, London.
- Burl A., 1995, *A Guide to the Stone Circles of Britain*, Ireland and Brittan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Dames M., 1996, *The Avebury Cycle*,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 Flannery, K.V., 1976, ‘ Empirical Determination of Site Catchments in Oaxaca and Tehuacán’, In (ed.) Flannery, K.V.,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Academic Press, London:103-117.
- Mohen Jean-Pierre, 2000, *The Carnac alignments-Neolithic temples*,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Éditions du patrimoine, Paris.
- O’Kelly, M. J., 1989, *Early Ireland, -An Introduction to Irish Pre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nfrew C. and Bahn P.,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Fourth edition), Thames and Hudson, London.
- Richards J., 1991, *Book of Stonehenge*, B.T. Batsford Ltd/English Heritage, London.
- Tilley C.,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Berg Publishers, Oxford.
- Vita-Finzi C., 1978, *Archaeological Sites in their Setting*, Thames and Hudson, London.

Abstract

The functions of the menhirs located in the Weolbae Alluvial Fan, Daegu City and their emerging background

Kim, Gwon-gu

This thesis aims to review the functions of the menhirs located in the *Weolbae* Alluvial Fan, Daegu City and their emerging background. To do so the following variables have been analyzed comprehensively: their distribution, topography and geographical features, the distributions of both settlements and dolmens during the Bronze Age, the general pictures of the socio-cultural features and subsistence in Youngnam Region during the Korean Bronze Age, etc.

The analysis has reached a conclusion that a series of the menhirs located in the *Weolbae* Alluvial Fan, Daegu City, had been built up during the Late Bronze Age dated from 8th Century BCE to 4th Century BCE(called the *Songguk-ri* Phase), which had witnessed th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village life by the agricultural sedentary groups. That is, the agricultural villagers had built up a series of the menhirs as a strategy not only to reproduce their exclusive right of their village territory including agricultural fields but also to justify it. So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series of the menhirs as a monument for an agricultural sedentary society in the *Weolbae* Alluvial Fan, Daegu City.

The menhirs have been thought to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village territorial markers(for example, menhirs at *Weolam-dong* and *Sangin-dong*), a ritual center marker or abstractive - collective ancestral worship center(for example, the menhir at *Jincheon-dong*), village space-dividing standard monument, group's symbolic landscape monument and so on. The functional diversification of the menhirs had been occurred and their symbolic meanings had been diversified and changed continuously so that their symbolic cultural layers have had multiple meanings. The villages in the *Weolbae* Alluvial Fan, Daegu City had spatial divisions such as dwelling areas, cemetery areas, ritual areas, agricultural fields, and so on. The menhirs are thought to have been spatial standard monument to recognize the location of each area. In addition the menhir at *Jincheon-dong* vividly shows the incorporation of megalith culture and petroglyph culture.

There are many future research challenges to seek more solid evidences on dating of menhirs, their builder's settlement patterns and structures over time, and future excavation of the wider areas around the menhirs no. 1 and No. 3 at *Weolam-dong*. So the contemporaneity of the menhirs must be revisited further in the future by way of more accumulating stratigraphic evidences. The characterization study of menhir stone must be fulfilled to identify stone quarrying sources.

**keywords :**

menhir, the Late Bronze Age, territorial markers, ritual center marker, agricultural sedentary monument